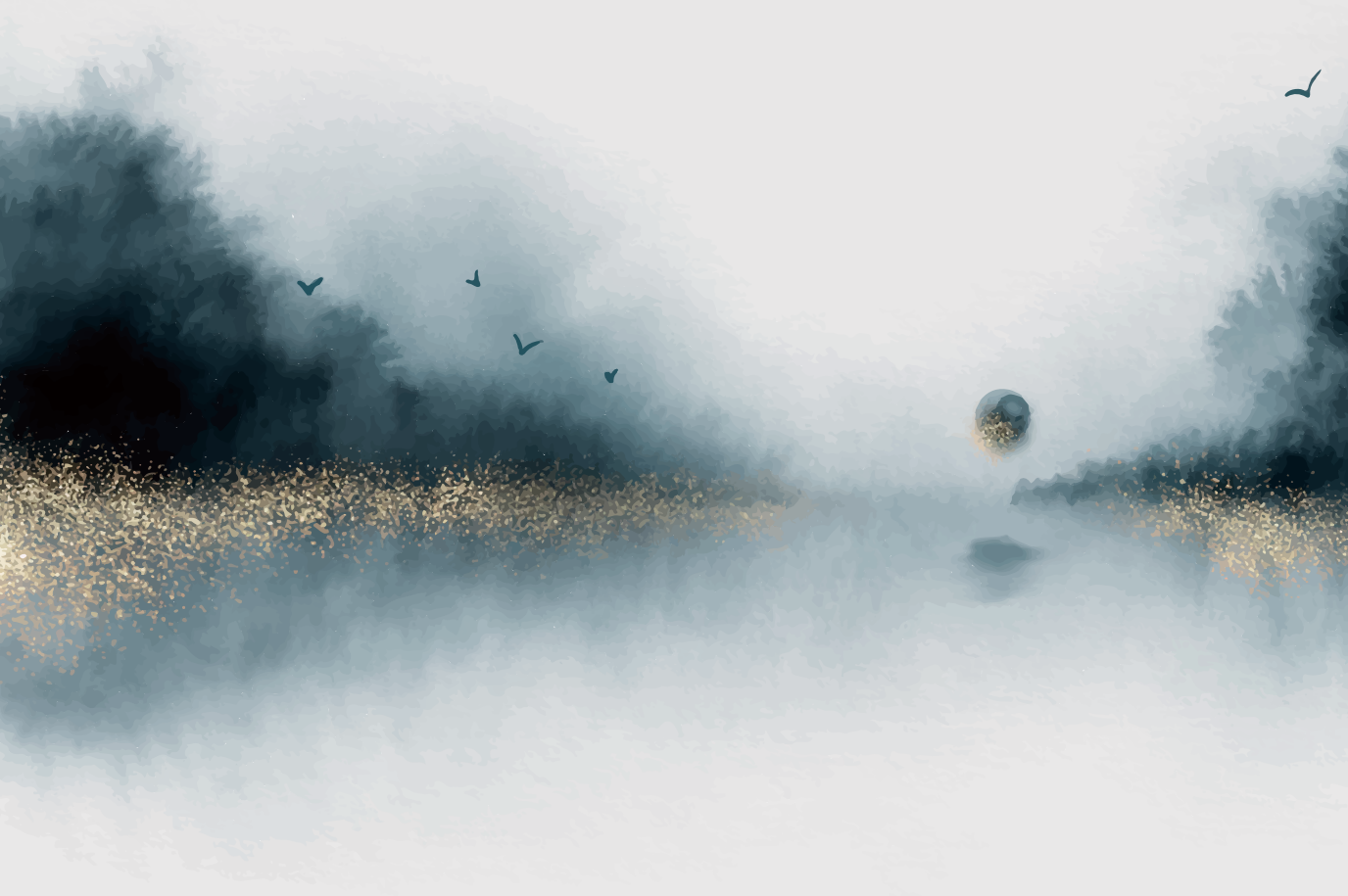


참 삶에 대한 단상

한국경제 에세이 수록



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이사

● 주요 약력

1993~ (주)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이사
1988~1993 (주)큐닉스데이터시스템 사업부장
1982~1988 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선임연구원
1979~1981 삼성전자(주)

2005~2006 미국 USC MBA
2002~2003 뉴욕주립대 기술경영 석사
1973~1977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주요 경력사항

2015 정부지원 R&D사업
GLOBAL CREATIVE SOFTWARE
개발과제 총괄 책임

2012 국가지원 개발프로젝트 WORLD BEST SOFTWARE
통합 스마트 ERP 개발 총괄 책임

2011 은탑산업훈장 수훈
2007 K-SYSTEM GENUINE 개발 총괄 CTO
2003 롯데칠성음료 ERP 프로젝트 총괄 PM
1999 롯데제과 ERP 프로젝트 총괄 PM
1997 한국형 ERP K-SYSTEM 개발 총괄 설계 및 감독
1994 유공해운 다운사이징 개발 책임
1991 대한페인트링크 경영정보시스템 개발 책임
1987 서울올림픽 전산시스템 설계
1985 아시안게임 전산시스템 설계
1983 전국체전 전산화 실무책임



나이 들어도 가치를 유지하는 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34.9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의 두 배가 넘는다. 세계 1위다. 이는 노인들의 일할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은퇴 후 값싼 노동력 이용 확대 측면에서는 씁쓸하기도 하다. 나이가 들면서 설 자리가 줄어드는 까닭은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덜하다’는 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온다. 첫째는 현실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능력은 되는데 원하는 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늙어가면서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주로 첫 번째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젊어서 능력이 안 되면 시간과 공을 들여 능력을 쌓으면 된다. 그러나 능력은 되는데 활용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 어디를 가든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갈림길은 바로 ‘활용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자신의 학식이나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묵혀 두면 가치가 없다. 가치는 자신이 획득한 자격증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 아닌 타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비해 가치의 크기가 정해진다. 즉,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이 쓰일 데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많이 쓰이는 길’을 찾아 그 길에 매진해야 한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경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무리 최신 기술을 적용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것을 만든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고 만다. 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상품이라도 많이 팔리면 가치가 생기고 돈도 저절로 많이 번다.

그러므로 가치를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쓰일 수 있을까?’를 찾아 묵묵히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덜 할까’,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덜 쓰이는 길을 선호한다. ‘덜 쓰이는 길’을 찾아가면 기회와 멀어지면서 역량도 점점 퇴화한다. 결국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삶을 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쓰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직장, 가족, 사회적 모임, 지역사회 등과 같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존재 목적에 잘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곳에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회사 존재의 목적에 맞게, 가정에서는 가족의 존재 목적에 맞게 정성을 다하며 살 때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해 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고유의 가치를 유지해 설 자리를 잃지 않는 방법이다.

왜 전체 최적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특징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개인’이다. 모든 가치와 판단의 중심에 ‘나’라는 개인이 있다는 말이다.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함께 사는 ‘사회적 삶’이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다.

만약 모든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달린다면 도로는 어떻게 될까? 다소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부분 최적과 전체 최적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는 데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개인은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부분 최적), 많은 사람이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 체계를 도입해 모두의 안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전체 최적). 이 경우 개개인(부분)이 시간 손실이라는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전체 최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꼬리를 물고 운행하는 차량을 종종 본다.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짜증스러워지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대형 사고에 신호 위반이라 100%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되지 않을 것이다. 1분 빨리 가려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남보다 더’ ‘남보다 먼저’를 압제같이 취하려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좁고 단견적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묵묵히 주인의 행동을 충실하게 돕는 덕에 여러 활동이 가능한 것을 보면 놀라듯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존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자신이 먹고, 입고, 보고, 즐긴 모든 것이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덕분에’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삶의 방향은 나와 연결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전체 최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체 최적의 길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나와 주변 사람 모두에게 좋은 방안을 찾고, 양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체 최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우선 지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어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처지를 느끼고 양보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긴 인생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실행해 갈 수 있는 의지력도 겸비해야 한다.

통찰력과 공감 능력, 의지력을 갖추고 전체 최적의 삶을 살아가면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회사는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져진 사회는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남을 배려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까닭

스마트폰이 남녀노소 모두의 손에서 잠시도 땔 수 없는 필수품이 되면서, 인간사회가 점점 더 빠르게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원하는 정보를 홀로 찾을 수 있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홀로 할 수 있고, 심지어 앱을 통해 식사 주문도 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 간에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왜 남들까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란 생각이 점점 더 확산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분명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열 살 미만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다.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도 없고, 다람쥐처럼 날개에 나무 사이를 누빌 수도 없고, 곰처럼 우람한 힘을 뽐낼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같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 태어났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면 누구나 나 아닌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세상에 배풀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혹, 잠시 성공한 듯하다가도 그 끝이 좋지 않았던 수많은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크게 보면 유아기에 형성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흔할 것이다. 잘못된 일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억눌려 왔던 습관에서 나오는 움츠러드는 행태,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 버리는 폐쇄적 선택 등을 꼽아 볼 수 있겠다.

이처럼 나 이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분, 욕구 등에 대해 관찰하거나 이해하는 기회는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물론 창의성이나 혁신적 사고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즉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역설적이지만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더 돋보이게 된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배려받으면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를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해 보답하리라 다짐하게 된다. 나에게 보답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때 인생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삶의 바탕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성장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겸손함은 무르익고 이해심은 깊어지는 반면, 과도한 욕심은 쉽게 떨쳐낼 수 있다. 또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등 만족감으로 충만한 상태를 항시 유지함으로써 저절로 행복한 삶을 이어 나가게 될 것이다.

혁신하려면 ‘완벽주의’보다 ‘일단 실행’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다. 우물쭈물하다간 뒤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SW) 개발에서도 ‘애자일(agile·민첩한) 방법론’이 대세다. 새로운 SW를 개발할 때 우선 중요한 기능을 대충 만든 뒤 사용자 반응과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더 성공적인 SW를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SW 개발만이 아니다. 새로운 혁신을 추진할 때도 완벽한 혁신 방안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하다 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방안 마련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아서다.

필자의 어릴 적 별명은 ‘사고 박사’였다. 호기심이 많아 닥치는 대로 만지다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전처럼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회사 기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구입한 책 중 읽지 못한 책이 한가득이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진 탓이 아닐까 싶다.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완벽주의적 성향이 짙다고 한다. 완벽주의자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다. 그런 탓에 막상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때 추진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또 목표와 기준이 높지만 실질적인 도전은 잘 못 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매사가 불만족스럽고 새로운 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탈 벤 사하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완벽의 추구>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완벽함에 대한 걱정과 강박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목표 달성 과정의 즐거움과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적기’에 해야만 성과가 극대화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많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자꾸 미루는 경향이 다분하다. ‘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 ‘새해부터 새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 등 끊임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실기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미루는 삶에는 혁신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말에 동의한다. 영감이란 것은 방향을 깨우쳐주는 것이지 해야 할 내용의 세부 사항까지 짚어주지는 않는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바로 시작한 뒤 서서히 다듬어 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성공의 길에 더 빠르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

요 즘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고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다. <돈키호테>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의 이 말을 음미해 볼 만하다.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것 중에 최상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정직해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잘못을 정직하게 자신의 탓으로 인정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을 지속해서 이겨내면, 작은 용기가 차곡차곡 쌓여 점점 더 큰 용기로 자라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작은 용기를 쌓아 큰 용기를 발휘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젊었을 때부터 ‘정직한 에이브(에이브러햄의 애칭)’라고 불린 링컨은 많은 고난을 겪으며 성장해 대통령이 됐고, 용단을 내려 미국의 남북 분리를 막기 위해 전쟁도 불사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보편적 존엄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예 해방을 이뤘다.

반대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한 번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거짓말이 늘어난다. 부정직이 습관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거짓이 늘면서 에너지를 긍정적·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모의 책무 중 으뜸은 아이를 정직하게 키워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의도치 않게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반성하고 개선 방안을 고심하면서 성장한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온통 제 생각과 에너지를 거짓이 탄로 나지 않도록 하는 데 먼저 쓰게 된다.

거짓말뿐 아니라 핑계 또한 크게 경계해야 할 부정직한 행동이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흔히 생긴다. 그러면 잘못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데 혈안이 되고, 잘된 일은 최대한 자신의 공로로 부풀리려고 한다. 이런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면 조직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조직 내에서의 정직은 바람직한 기업문화와 윤리 경영의 핵심 요소다. 조직 내에서 부정직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용인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에 더 크고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다.

조직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의 첫 번째 책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직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내의 소통이 활성화해 창의적인 협업이 증진되고 개인의 지속적 성장이 이뤄지는 등 조직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매 순간 충실하자

새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신은 인간 누구에게나 ‘시간’을 공평하게 줬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 소중한 삶을 별 의미 없이 마친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은 자명하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마법의 도구다. 시간을 활용해 다음 세 가지를 중히 여기고 살아가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무엇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즉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 놓는 것이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는 동안 끊임없이 헤매게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어느 것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 주변의 다양한 자극을 최대한 배제하고 산만함에서 벗어나 하고자 한 일에만 집중력을 유지해야 잘 해낼 수 있다.

셋째, 일관성 있는 추진이다. 일단 큰 뜻을 세웠으면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쉽사리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이는 유혹에 흔들려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일심으로 해 나가면 놀라운 성과를 일궈낼 수 있다.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저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A New Earth)>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로지 순간에서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사람만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곗바늘을 돌려 단 1분 전으로 돌아갈 수도, 1분 후로 먼저 갈 수도 없다. 인생을 잘 살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심리적 시간에 매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인생 전반을 엉성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어떤 일이건 순간에 충실한 일이 모여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하루에 해낼 수 있는 일만 보면 다소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하찮게 생각하면 점점 더 그 일에 정성이 덜해지고 소홀히 여길 것이 뻔하다. 뜻한 바가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큰일을 이루려면 하루를 귀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한다. 하루를 시시하게 보내는 사람은 인생이 시시해질 것이고, 하루에 마주하는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간이란 마법의 도구에 힘입어 더 밀도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표와 꿈의 기초체력, 버티는 힘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끈기와 인내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끈기와 인내심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많은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과보호하며 키운 아이들이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오히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사회에 분노하는 부적응형 외톨이로 자라기 쉽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마주하게 된다. 그런 일들을 하나씩 이겨내면서 내면이 성장하고, 인생의 진리와 의미를 깨닫게 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체력이 바로 ‘버티는 힘’인 것이다.

버티는 힘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닌 듯하다. 필자도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과잉보호를 받았기에 그야말로 인내심이 바닥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살 위 형이 장난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덤벼들어 형의 볼에 흠터를 남기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몰려온다.

대학 시절 필자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의도치 않게 철이 들었고, 군대에서는 어려운 일을 자처하면서 점차 버티는 힘이 강해졌다. 첫 직장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유학 준비를 하다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1년간 레스토랑 매니저로 근무했을 적에는 직원들과 같이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잤다. 직접 직원들 아침밥을 해 먹이고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원천이 됐다고 생각한다.

인내와 끈기는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진리를 나이 서른이 돼서 깨우쳤다. 좀 더 일찍 몸에 익혔더라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도 있다. 부모들께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일 중 가장 기본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끈기와 인내를 익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인내심이 부족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가 없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버티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어려움에 용기와 강인함, 그리고 낙천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것 또한 인내심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급함 없이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인생에서 큰일을 이루려면 어려운 일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 어리석음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성취의 기쁨은 곳곳이 버터내는 끈기와 인내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이다.

‘상반된 역량의 시너지’로 리더십 완성

얼마 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사상 두 번째로 3조달러를 돌파하면서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취임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너져가는 상태였는데 수장을 맡은 지 10년 만에 우뚝 섰고 앞으로 10년도 더 승승장구할 전망이다.

나델라를 비롯해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 어도비의 샐터뉴 너라연,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 등 세계 유수의 정보기술(IT) 기업 CEO가 인도 출신이다. 변화와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지, 바로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인도는 18세기부터 가난의 대명사로 전락해 불확실성과 혼돈이 커졌다. 이런 격변기를 극복해낸 사람들은 인내심과 빠른 적응력을 갖추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평소 <우파니샤드>나 <바가바드 기타>와 같은 힌두 고전에 담긴 인간의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우주의 질서 등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익히며 자라왔으리라. 이렇게 내면의 강인함을 다져온 인재들이 미국으로 넘어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배출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1세기 들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끝없는 경쟁과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야기된 불안과 긴장감, 불확실성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심지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미래에는 인류가 AI에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이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성과를 내며 성장해 나가려면 리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시대를 잘 이끌어가려면 리더는 다음의 상반되는 두 가지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하나는 변함없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통찰력. 다른 하나는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에 따라 변화를 이끌어가는 유연함이다. 나델라는 CEO로 취임하면서 ‘클라우드 퍼스트’ 기치 아래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고, 결국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또한 2019년부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130억달러에 달하는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선점했다. 위의 두 가지 역량이 시너지를 내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한국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빨리빨리’ 기질을 지니고 있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유연한 편이다. 다만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 이에 대한 교육적 투자나 개인적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량을 고루 발전시킬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감사히 여기고 귀중히 다뤄야 할 건강

우리는 흔한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물과 공기다. 공기 없이는 단 몇 분밖에 살지 못하고 물 없이는 며칠밖에 견디지 못하지만 그 소중함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물론 물과 공기를 온전히 누리는 데 매 순간 감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건강한 신체'일 것이다. 하지만 물, 공기와 같이 그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을 혹사하며 사는 것 같다.

인간의 신체에서 모든 기관은 기가 막히게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24시간 365일을 움직이고 있기에 생명을 유지하고 다양한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다. 건강한 신체가 뒷받침돼야 행복이 배가되고 인생의 의미가 깊어진다.

많은 시력 덕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멋진 풍경,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 산길에 핀 작은 꽃들의 앙증스러움 등... 시력이 뒷받침해주기에 훨씬 수월하게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반가운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 섬세한 감정도 공유할 수 있다.

민감한 청력이 선사하는 행복도 크다. 우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 TV 시청은 물론이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즐기면서 따라 부를 수도 있다. 천상의 선율과 같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함께 뛰어놀 수 있고 사람들과의 소통 또한 훨씬 수월하다.

손발이 자유롭기에 주어진 역할과 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 게임이나 운동, 창작과 같은 취미생활 및 장거리 여행도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한번 다쳐 보면 확실히 깨닫는다. 실명이나 난청 등의 증상이 아니더라도 발목 골절, 치아 통증 등 질환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낀다.

필자는 집안 유전인지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안 좋아졌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 자주 되물게 됐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먼 자리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된다. 특히 고음 청력이 더 많이 떨어져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감상을 못 하게 된 것이 참 서글프다. 점점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기회’라는 선각자들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는다. 지구뿐 아니라 우주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의 신체만큼 절묘한 조화를 갖추고 태어난 생명체는 없다고 한다. 이렇게 귀중한 기회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신체를 살뜰히 챙겨 존엄한 존재로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오래도록 이끌어 가야 하겠다.

영림원소프트랩 철학

철학
Philosophy

영웨이
永-Way

우리의 사명

우리는 고객기업이 경영을 더 잘하게 최상의 솔루션과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며 더 나아가 세계로 도약한다.

이를 위하여 누구나 끊임없이 경영지식과 IT지식을 쌓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서로 나누며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활기차게 일한다.

고객의 성공을 우리들 번영의 근본으로 삼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더불어 건전한 경영을 바탕으로 발전해 가며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

우리의 비전

아시아 1등 ERP 회사로 고객기업의 혁신을 도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다.

영웨이(永-Way) 실천 방안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소중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정성을 다함으로써 자기 발전을 이루며 자신감과 용기로 정직하게 진실을 따른다

목적을 중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의 충동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이 택한 조직의 목적에 맞게 행동한다

주도적인 삶을

꿈과 희망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왕성한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하는 기쁨을 누린다

“이기적인 개인은 이타적인 개인을 이길 수 있지만, 이기적인 집단은 이타적인 집단에게 지게 된다.”

“최신 기술은 계속 변하고 모방하기도 쉽지만 기업문화는 성과의 원천이며 모방도 어렵다.”

“올바른 방향과 일관된 노력으로 개인의 성공을 이루듯 올바른 사명과 좋은 기업문화로 회사의 성공을 이루어 가자.”

영림원소프트랩 활동

01 CEO포럼 & 차세대리더포럼

고객 기업이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한 명사를 초빙하여
경제/경영의 주요 이슈 및 인문학, 최신 IT 트렌드 등 다양한 학습과 품격 높은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

02 영림원일프로클럽

-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 장학생들의 멘토 역할 수행 - 여름, 겨울 캠프를 통해 진학상담 및 문화 체험학습 지원

03 후원

- **보육원** 지온보육원, 파주보육원 원아들 대상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이벤트 진행
- **대안학교** 사단법인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의 김인순 이사장이 설립한 다문화 특성화 대안교육기관 '해밀학교'에 장학금 지원
- **학술후원** - 한국IT서비스학회 - 영림원ERP 논문상 제정
- 한국경영정보학회 - 춘/추계 ERP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04 봉사활동

- 국립공원공단과 ESG 경영 MOU 체결, 기부금 전달 및 식재 봉사활동 지원
-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 연탄 기부
- 강서지구 환경 정화 활동

05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

-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 구내식당 사전 예약제로 식수 인원 확인, 벌금제 운영
- 각종 환경보호 캠페인 참여

06 일자리 창출

- 비(非) 이공계 전공자 대상 경영·IT 융합형 ERP 엔지니어를 직접 양성
-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시니어 컨설턴트로 채용

07 독서토론회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고 CEO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 1회 독서 토론회 및 저녁 만찬회 개최



(주)영림원소프트랩 www.ksystem.co.kr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A동 23층 (우)07547

대표전화 1661-1155 | 팩스 02-6280-3128 | 블로그 blog.ksystem.co.kr